

대행 스님

모든것이 보이지 않는데서 보이는데로 나오는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또다시, 항상 함께하면서도 너 나로 따로따로 있다가 또 이렇게 한데 한자리를 하고 있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분단된 우리가 너무도 요새 물바람이 세어서 위태위태한 것을 볼 때에, 지금 현재에 닥쳐오는 문제를 볼 때에, 엊그저께가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싶군요. 옛날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다시피 신라와 고구려, 백제 세 나라가 있었을 당시의 얘길 잠깐 하겠습니다. 나는 역사를 배우지도 않았지마는, 우리가 이렇게 국난에 빠져서 허덕일 때는 생각이 납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 하기 전 얘깁니다마는 원광 법사라는 유명하신 스님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나보다도 더 상세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참 도가 높고 공부를 잘하셔서 그 때는 부처님 법이 절대적이고 이름도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까지 안 퍼진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널리 이름이 퍼졌던 그분이 그럼 신라에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한마음 도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항상 그것을 거름으로 하여 현재에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나갈 것을 가르쳤죠. 신라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사람들의 차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용도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화랑들이 찾아오면 찾아오는 대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섯 가지 예의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법도를, 계율을 말입니다. 첫째는 충성을 다하는 것을 잊지 말고, 둘째는 효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셋째는 싸움을 하러 나갔을 때에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이고, 넷째는 친구들을 사귀되 한마음으로서 둥글게 사귀며 마음을 같이할 수 있는 둘 아닌 도리를 가르쳤고, 다섯째는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방을 죽이게 될 경우 살생이 아니라 가려 가면서, 한 사람을 죽일 때도 열 사람 백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려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죽일 때도 여름이나 봄에는 알을 낳으니깐 죽이지 말 것이며, 가려서 죽이라는 얘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식을 낳고 사는 부모로서의 마음은 애틋하기 그지없으니 짐승들의 마음이나 사람들의 마음이나 똑같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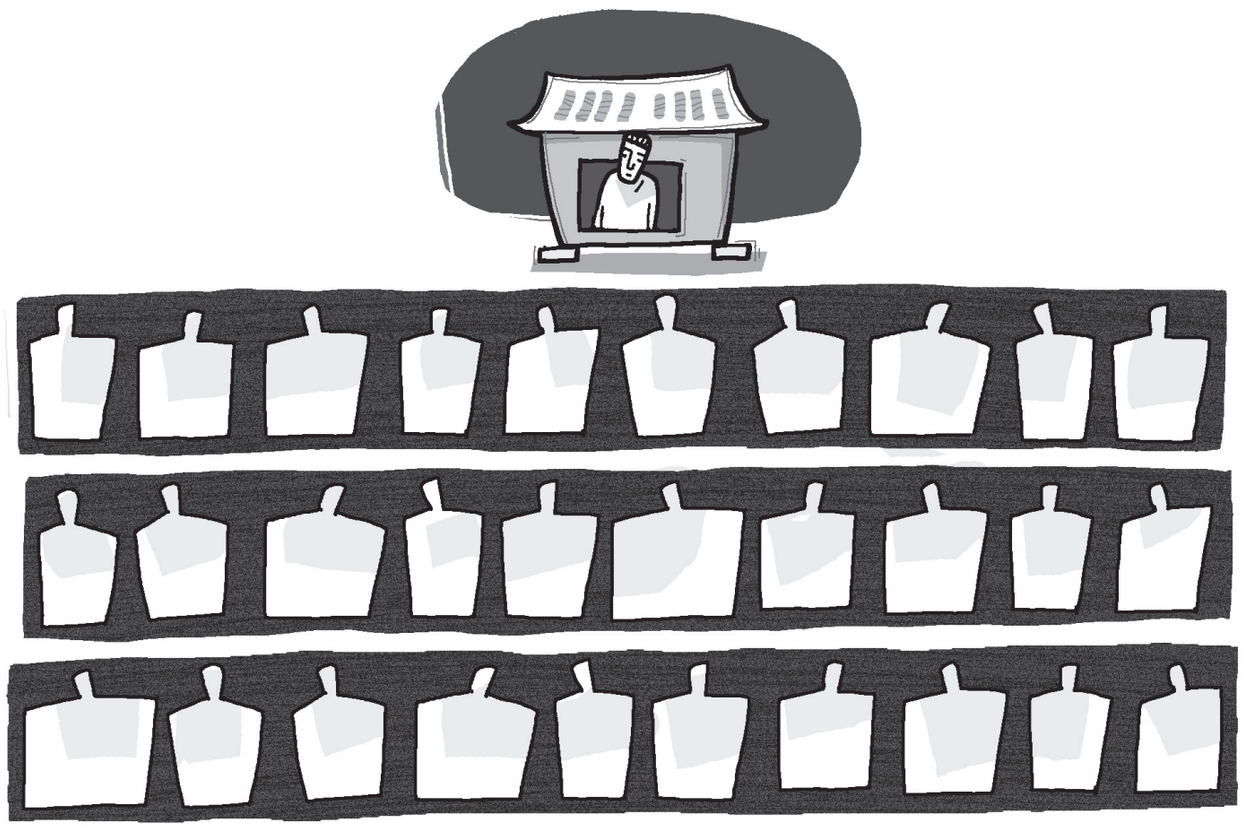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렇게 가르치시면서도 역시 한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일깨워 주셨고, 그때 당시에 모든 왕이든 왕족이든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원광 법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들었답니다. 그렇게 따르고 듣는 반면에 원광 법사 스님은 참, 대도를 펴시면서 한마음 도리를 심어 주신 거죠.

화랑들이 이어서 이어서 전달을 하면서 수많은 화랑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았답니다. 수많은 화랑들이 이어받은 것은 물론 아낙네들도 이어받으며 왕족들도 이어받으며, 신라뿐만 아니라 옆의 나라들도 전부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삼국 통일을 하는 데도 원광 법사 스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거기에 베풀어져서 많이 기여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정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한생각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들이닥친 문제들, 한마디만 이렇게 하죠. 부처님의 뜻을 받는 불제자들은 항상 겸손하게 숭고하게 호국 불교를 염원하면서 게을리하지 않고, 한생각을 그렇게 호국 불교의 정신으로써 사찰마다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나가서 몸뚱이로 돌아치는 게 아니라 항상 앉아서 염원하고 게으르지 않게 정진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러한 문제가 닥쳐오는 것이 우리 산 사람들의 행위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만도 아니죠. 정치를 하는 데 학생들 문제도 국민들 문제도, 벌어지고 있는 게 어디서 왔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닥치면 그건 당연히 스스로서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왜 오늘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나도 똑같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렇게 물결치듯이 바람 치듯이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에 다 흡습을 못 했으면서도 통일을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원광 스님의 그 뜻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둘이 아닌 오늘인 것입니다. 그때의 오늘도 오늘인 것이요, 오늘의 오늘도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어리석어서인지 모르지마는 내가 오늘날에 생각해보니 4·19도 있었고 6·25도 있었고, 또는 생각해 보니 삼국 통일 할 때 그때의 영령들도 지금 산 사람들에게 물결과 바람으로 치는 동시에…. 산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어느 누구가 해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당면해 벌어지고 있고, 또는 그렇게 물결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침착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죠. 마음에 따라서 육체가 움죽거리듯이 스스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마음의 동요를 시키고 학생들의 마음을 동요를 시키고…, 6·25 사변 때도 얼마나 무참히 죽었습니까? 4·19 때도 학생들이 무참히 죽었으며 또는 삼국 통일 할 때도 그렇게 무참히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요기에 관한 건만 얘기하느라고 그러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는 하지만 그 마음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그 잠재의식 속에 입력되었으면, 때에 따라서는, 즉 말하자면 쓰레기통의 벌레들이 우르르르 한 떼로 나와서 수만 마리가 퍼지듯이 보이지 않는 데서 그만큼, 잠재의식의 영령들이 바람을 일으키고 물결을 일으키고 국난엔 여지없이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당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데만 알고 안 보이는 데는 등한시하는 이러한 습관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왜 그렇게 국사들을 모셨던가?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국민을 이끌어 나가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균등하게 균형을 잡아서 마음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하고, 물결을 막아야 할 줄 알고, 그 물결을 응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령들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영령들의 군부를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세웠던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보이는 것만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국방부에 사람이 몇이며 또는 포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